

# 남은 경기 다 이겨야... 험난한 올림픽 가는 길

야구대표팀 슈퍼라운드 2차전 대만에 0-7 영봉패  
내일 멕시코·모레 일본전...선수들 도쿄돔서 재정비  
대만-미국전 결과 관심...대만 앞서야 직행티켓 확보



한국 야구대표팀이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빨간 불이 켜졌다. 15일이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2일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대만과의 2차전에서 0-7 영봉패를 당했다.

선발로 나온 김광현이 3.1이닝 3실점으로 흔들렸고, 타자들은 5안타의 빈타 속 단 한점도 만들지 못했다.

이와 함께 호주, 쿠바, 캐나다와의 C예선 3경기에서 이어 슈퍼라운드 1차전 미국전까지 계속됐던 한국의 연승이 중단됐다. 예상치 못한 참패로 한국이 이번 대회 우선 목표로 내세웠던 도쿄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만전은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9부 능선이었다. WBSC는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아메리카대륙 1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위에 올림픽 출전권을 한 장씩 준다.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얻은 만큼 한국은 호주, 대만보다 앞선 성적을 내면 도쿄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

각 조 예선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멕시코, 일본 세 팀은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했다. 각 조 2위를 기록한 호주, 미국, 대만은 반대로 1패와 함께 슈퍼라운드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3전 전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슈퍼라운드 미국전 승리, 대만전 패배로 2승 1패

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1승 2패다. 호주는 13일 미국을 2-1로 꺾었지만, 1승 3패로 처져 있다.

현재 흐름은 아시아-오세아니아 티켓을 놓고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한국이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자력으로 올림픽 티켓을 잡으려면 15일 멕시코, 16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15일이 한국에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먼저 대만이 오후 12시 미국과 슈퍼라운드 3차전을 벌인다. 이어 오후 7시 한국이 슈퍼라운드 1위팀 멕시코와 만난다.

멕시코전 결과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경기에도 관심이 간다. 대만이 미국에 패한다면 한국은 부담감을 덜고 '난적' 멕시코와 맞설 수 있다.

하지만 흐름은 대만에 유리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앞선다는 평가지만, 야구공은 등글다.

대만은 12일 한국을 제압하며 기세가 올랐고, 반대로 미국은 13일 호주전 패배로 1승 3패가 되면서 호주와 공동 5위로 내려앉았다.

분위기를 탄 대만이 미국까지 꺾는다면 한국은 부담 배제로 멕시코를 상대해야 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한번 대만에 충격의 패배를 당한 한국대표팀은 13일 휴식날을 보냈다.

공식 훈련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14일 도쿄돔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15일 멕시코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힘 내라 한국 야구! 12일 일본 지바 조조 마린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2차전 대만과 한국의 경기. 4회초 추가 실점한 김광현이 교체돼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 우즈, 23년간 매 라운드 1억씩 벌었다

PGA 통산 1억2045만9468달러 수입...프로 전향후 345개 대회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1996년 프로 전향 후 매 라운드 상금으로만 1억여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13일(한국시간) "10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 통산 상금 1억2000만달러를 돌파한 우즈가 18홀, 한 라운드를 마칠 때마다 평균 9만 5603달러(약 1억1000만원)를 벌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PGA 투어 통산 상금 1억2045만9468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우즈가 프로로 전향한 1996년 이후 출전한 대회 수 345개의 라운드 수로 나누면 라운드당 상금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우즈는 프로 전향 후 345개 대회에서 321차례 컷을 통과했다. 거의 매 대회 4라운드씩 치렀다고 보면 대회마다 4억4000만원 정도의 상금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또 상금만 따진 액수라 일부 대회의 초청료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우즈는 이날 2020년 2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개최하는 대회라 우즈의 출전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우즈는 12월 역시 자신이 개최하는 이벤트 대회 하어로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고 이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스컵에 단장 겸 선수로 뛴다.

/연합뉴스

## MLB 무명 감독들의 반란

AL 미네소타 발렐리·NL 세인트루이스 실트 올해 감독상

미네소타 트윈스를 훈련 군단으로 키운 로코 발렐리 감독과 2019시즌 팀을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크 실트 감독이 메이저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3일(한국시간) 2019시즌 감독상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두 감독을 양대 리그 감독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 감독상을 받은 발렐리 감독은 1위 표 13장, 2위 표 13장, 3위 표 2장을 받아 106점으로 1위 표 13장, 2위 표 9장, 3위 표 4장, 96점을 기록한 뉴욕 양키스 애런 본 감독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발렐리 감독은 선수 시절 큰 기대를 받은 유망주였지만, 근육에 힘이 빠지는 희귀 유전병 앤더슨 증후군으로 고생하다 은퇴했다.

올해 만 38세의 나이로 현역 최연소 감독이 된 발렐리 감독은 미네소타를 최고의 훈련 군단으로 개조시켰다.

미네소타는 307개의 팀 훈련을 기록해 지난해 뉴욕 양키스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팀 훈련(267개)을 1년 만에 가볍게 경신했다.

내셔널리그 실트 감독은 사상 처음으로 프로 경력이 없는 지도자로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그는 대학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했지만, 프로 무



발렐리 실트

대는 밟지 못했다. 2004년 세인트루이스 마이너리그 코치로 프로 무대를 처음 밟았다. 그는 2018년 7월 경질된 마이크 머시니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았다. 실트 감독은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를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로 이끌었다.

실트 감독은 투표에서 1위 표 10장에 그쳤지만 2위 표 14장, 3위 표 3장을 얻어 95점으로 밀워키 브루어스 크레이그 카운슬 감독(1위 표 13장, 2위 표 6장, 3위 표 5장, 88점)을 제치고 감독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에이스는 괴로워 12일(현지시간) 미국 덴버 펍시 센터에서 열린 덴버 너게츠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2019-2020 시즌 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덴버의 센터 니콜라 조키치가 파울을 당해 넘어지고 있다. 이날 애틀랜타는 덴버를 125-121로 이겼다. /연합뉴스